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지원

남원시, 315억 예산 편성... 청소년수련관·상담복지센터 등 개선

남원시가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2018년도 315억을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구의 18%인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청소년들의 오랜 꿈인 청소년수련관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올해 완공해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고 여가활동의 요람이 될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동충동 옛 시청사 부지에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체육활동장과 북카페, 댄스연습실, 자치활동실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 상담, 학교폭력 등 예방교육, 집단 심리검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 4억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마음까지 보듬어 줄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기관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린이집 6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7개소, 시간연장 어린이집 40개소, 영유아 보육·가정양육 아동 3천여명에게 보육료 및 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226억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주력을 다할 예정이다.

올해 9월부터 시행예정인 만10~5세의 관내아동 3천여명에게 월10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수당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한층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급식지원을 위해 11억을 편성하여 남원시 관내 결식 우려 아동 1,000여명에게 아동급식 카드를 이용한 급식이 제공되며, 가맹점 160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아동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올해는 아동급식 단가를 지난해보다 인상하여 보다 질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작년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아동급식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남원시가 도내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통해 미래의 꿈나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부정부패 제로 청렴한 '클린임실' 실현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 전개

임실군이 강력한 청렴의지를 바탕으로 '클린임실'을 만들어 가는 데 혁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특히 설명절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교육과 청탁금지법 홍보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 및 혁신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18일까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항응 등 음성적 비리, 무단이석과 근무태만 행위 등 강력한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추진기로 했다. 이미 군은 공무원들의 청렴성 유지를 위해 매분기 월례회의 때마다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거부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 인사청탁의 금지 등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부당 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금전 등의 차용 금지, 경

조사의 통지 제한,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직무수행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을 경우나 부채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는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반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관내 관공서와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들이 공동으로 부패청산을 위한 청렴이행 서약을 함으로써 입찰과 용역, 물품구매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결의, 실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부패유발분야 법령 및 제도개선 과제발굴, 불합리한 규제개선, 부패방지위원회 간부초빙 직원교육, 부패영향평가 제도도입 등을 통한 청렴도 향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산하기관에 대해 자체감사와 감찰활동을 펼쳐 94건을 지적, 시정 개선했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4억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이뤄냈다.

특히, 민선6기에 들어서는 군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로 위법·부당사항

시정과 군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임실군클린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매일 업무 시작전 청렴 리마인드 학습으로 온나라시스템 실행시청렴학습 팝업창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등 청렴상시자가학습 시스템(Self Check Learning System)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직자 명예 실추와 신뢰저하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세지(SMS) 발송, 지난 해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을 만큼 큰 효과를 거뒀다.

심 민 군수는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설 명절과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600여 전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며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자체 시스템을 확립해 청렴도가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클린 임실군'으로 만들어 가도록 전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책·사람·문화가 함께 하길"

무궁화 복지월드, 임실군에 360여권 도서 기증

(사)무궁화 복지월드가 임실군에 360여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5일 무궁화 복지월드는 임실군청 군수실에서 심 민 군수를 만나 관내 작은 도서관 5개소에 문화와 아동, 청소년, 역사, 종교 등 관련 도서 360여권을 기증했다.

이번 도서기증은 평소 임실군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태준 단장이 문화와 아동, 청소년, 역사,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의 도서를 흔쾌히 기증, 앞으로 학생, 주부 등 많은 군민들이 보다 손쉽게 도서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무궁화 복지월드는 2016년도 임실군에 '사랑의 도서기증'을 한 바 있으며, 해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전태준 단장은 "작은 도서기증이지만, 임실군민들이 많이 이용하여 마음이 넉넉한 풍요로운 임실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소중한 도서를 기증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책과 사람, 문화가 함께하는 임실군이 되도록 기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기증받은 도서는 임실군 관내 5개 작은 도서관에 비치하여 군민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산불예방 활동 나서

순창군은 지난 2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 감시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 날 발대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관계 공무원 등 111명이 참석해 2018년 봄철 산불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

순창군은 이 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5월 15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예방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 산불감시원 61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감시 및 예방홍보, 산불 발생시 진화작업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하고 산 근접지 인화물질을 제거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봄철 산불예방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상하수도 대행업체 간담회

임실군은 지난 1일 상하수도 담당공무원과 관내 대행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하수도 대행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상하수도 시설 운영 및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하수도 파손구간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 해소 △퇴적물로 인한 막힘 현상 해결을 위한 펌프장 준설 등 효율적 운영관리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상하수도 대행업체 직원 친절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상호 협조사항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10일부터 시행

순창군이 1000만원 내면 순창 어디든 갈 수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혀 군민들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교통편의도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군이 시행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순창군민이나 관광객들이 순창 지역 관내에서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 요금의 단일 버스요금으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요금제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성인은 1,000원, 학생은 500원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편의성도 커진다.

실제 단일요금제가 시행되기 전 현재 버스 요금은 10km 이내 기본요금 1400원이며 복층 추령 갈때까지 최대 버스요금 4750원에 달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 군민이 경제적 혜택을 보는 것은 물론 장거리 이동자는 하루 버스로 왕복 시 최대 7500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교통카드 활용으로 추가 50

원의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운수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액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교통카드만을 결제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단일요금제를 이용하려는 군민들은 꼭 교통카드를 사전에 구입해야 한다.

군은 이미 관내 교통카드 판매·충전소 21개소를 확보해 단일요금 시행에 만전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군은 버스단일요금 손실보전액 산정 시스템 구축과 임승여객과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을 임승여객과 지난 5일 체결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황숙주 군수는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는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이용료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요금제이다"면서 "10일부터 시행되는 요금제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사전 준비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읍-제주 예래동 주민자치 자매결연협약식 거처

순창군 순창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국)와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현순태)가 지난 2일 순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측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협약식을 추진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지역간 지속적 교류를 통해 우호증진은 물론 감귤과 고추장 등 특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추진했다. 양 지역 주민자치위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양측 관계자가 상호 지역을 방문해 협의의 끝에 오늘 자매결연의 결실을 맺었다.

이날 자매결연식은 양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의 환영사와 기념사 자매결연협약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저녁 만찬을 끝으로 행사를 끝마쳤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바버터 지역 휘트니스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 휘트니스	